



노송동 지사협, 취약계층 '천사의 김치' 전달

전주시 노송동(동장 심규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노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성국)와 함께 하는 이웃 "천사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장은 회원들이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리는 관내 자원봉사자들의 후원과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맛갈스럽게 담긴 김장김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년, 조손가족 등 180가구에 정성껏 전달됐다. 김장 봉사활동을 주관한 김성국 위원장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 해 만들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기계설비건설협회, 도교육청에 장학금 기탁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가 전북도교육청에 사랑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석재 회장을 비롯한 이영길 명예회장, 함상진 부회장, 김광석 운영위원 등 임원진 5명은 11일 도교육청을 방문, 김승환 교육감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전북도교육청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기탁된 장학금 총 7,300만원에 달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에코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우수상'

전주대학교는 지난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21 ACC 소셜디자인 랩 '에코 크리에이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주대가 포함된 호남·제주권 LINC+사업단 10개 대학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환경과 문제에 대한 창의적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대회로 10개교 20팀에서 총 71명이 참여했다.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신생아들의 사망률을 줄이는 보급형 인큐베이터' 아이디어는 버려지는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더 나은 방향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Energy Harvesting 기술(사라지는 에너지를 수집하여 전기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적용한 인큐베이터를 제작해 제삼 세계의 미숙아 저체중증 사망을 줄이기 위한 보급형 인큐베이터 제작하는 것이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에코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수상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은 ACC 소셜디자인 랩 에코 크리에이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1개 팀과 장려상 1개 팀을 배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호남·제주권 LINC+사업단 협의회 10개교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 총 71명 규모의 에코 크리에이터 20팀을 선발해 우리의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물이다. 총 20개 팀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참가해 자정을 겨룬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석대학교 제약공학과 까도까도뜨니와 (송지은·하준민 4년) 팀은 양파껍질을 이용한 펠리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제안해 우수상을, 조용익(한약학과 2년)의 3명이 팀을 이룬 '달나라달걀'은 한약재끼리는 일반스레기가 마니아에...로 장려상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를 뚫고 달린 제자 사랑

전북대 이진호 교수와 일행, 전주시 파주까지 사이크 500km달리며 1km 100원씩 모금

코로나를 뚫고 달린 제자 사랑, 후원금 3130만원 전달



전주에서 파주까지 사이클로 500km를 달리며, 1km 당 100원씩 모금

전주대학교는 11일 대학본관에서 이진호 교수와 일행이 10월 25~29일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한 '수고했어 슈퍼스타' 프로젝트인 코스싸(코로나를 뚫고 달리는 사랑의 싸이클) 시즌 4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스싸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제한적이고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돼버린 재학생들을 찾아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참고 버텨준 수고한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를 통해 1km당 100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번을 포함해 네 번째로 참여한 이 교수는 전주사대 부교 정승훈 교사, 전주대 동문 박광수 씨(전 삼천1동장), 전주대 선교지원실 조경석, 오형재 직원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전주에서 파주까지 총 500km를 이동하며, 5명의 재학생을 만났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모은 후원금은 전액 유학생 장학금에 쓰이며, 모금액은 이번에만 3,130만 원이다. 이진호 교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찾아하려고 택한 자전거를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논산훈련소에 다시 들어가는 기분이 들 정도였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해지는 모습에 그 순간은 고통을 잊게 됐다"며, "위드 코로나시대에 앞으로는 이름을 변형해 캠페인을 지속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싸 시즌 3까지 모인 후원금은 38,828,200원으로, 이번 모금액까지 합하면 총 70,635,200원의 후원금이 전주대학교 재학생과 유학생에게 전해지게 된다. /정은성 기자



농업인의 날, 전주시의회 이남숙·이윤자 의원 감사패

전주시의회 이남숙(동서학서서학,평화·2동), 이윤자(비례대표) 의원이 11일 전주기잡농업인전수관에서 열린 제26회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전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최무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농업·농촌을 지키며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 생명산업에 이끌어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 단체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시됐다. 최무열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농촌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관로 감소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주시의회 이남숙, 이윤자 의원님이 평소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11일 전주시 노송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지역사회공헌단 봉사단원 30여명은 전주 연탄은행(대표 윤국춘)에 연탄 10,000장을 기탁하고 노송동 저소득층 6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수고를 흘렸다. 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의 연탄 봉사는 코로나19와 한파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뜻깊은 기회가 될 바라며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연탄 수급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전북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병철 지역사회공헌단장은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중양동, '경전라사' 착한가게 선정

전주시 완산구 중양동 주민센터(동장 최홍석)는 11일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호정)와 함께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한 중양동 경전라사(대표 이영찬)를 찾아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전주 객사 길에 위치한 경전라사는 맞춤형장 예복 전문대여점으로 예복, 맞춤형장 5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주시 청년 면접장 무료대여 지원 사업인 '전주시 청년 꿈꿀앗장'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장려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윤성 기자

어의당병원, 전북대에 1000만원 기부 '착한병원' 도 선정

(의)지리산의료재단 의의당병원(대표위원장 이춘근)이 학생 교육환경 개선에 써달라며 전북대에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어의당병원은 전주시 다가동(구 전주관광호텔)에 위치한 병원으로, 2014년 개원 후 암 환우들에게 수술 전·후 면역, 은열치료와 교통신호 후유증 통증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기 기부 등 나눔 실천을 통해 올해 10월 '착한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의의당병원은 지

난해에도 적십자에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기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의당병원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이 지역발전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대는 지난 10일 이춘근 대표위원장을 비롯한 지리산의료재단 및 병원 관계자들을 대학에 초청해 발전기금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김동원 총장은 이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기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흥덕농협, 사랑의 생필품 나눔행사 개최

흥덕농협(조합장 백영중)은 김원수 수석이사과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2,750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생필품 꾸러미 나눔 행사와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조합원 복지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수확기에 고된 영농작업으로 지친 조합원들에게 농협이 추구하는 사회공헌체적 가치와 농업인 조합원과 상생하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실천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자체 교육지원사업비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의 마스크 15만매와 고무장갑과 비닐봉투 2만회천 등 김장용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장경찰서에서 제공한 사고예방 안내장을 함께 직접 전달하면서 관내 조합원들의 건강과 안부도 묻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실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금동,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진행

남원시 금동(동장 윤용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삼식)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재우)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김장배부는 지난 8월 마을 뒷밭에서 재배한 배추 800포기로 맛있게 담근 김장김치는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됐다. 주민 A씨는 "날씨가 추워지면 김장이 제일 걱정인데 이번에도 김장 나눔으로 부담이 줄고 더불어 사는 이웃 간 정을 느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윤용환 동장은 김장봉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이번 김장나눔을 통해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포근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인후2동 자생단체연합회, '김장 나누기' 행사

전주시 인후2동자생단체 연합회(회장 임경섭)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신교숙)는 11일 동주민센터에서 인후2동 각 사회단체장 및 회원들 30여 명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성껏 담은 김장김치 200포기를 80박스(8kg)에 담아 관내 홀로어르신들과 소외계층 80세대에 전달했다. 임경섭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정성 들여 담은 김장김치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전달하고자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눔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는 지난 7~11일 5일간 독거노년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회원 60여명이 참여해 직접 정성으로 버무린 맛있는 김장김치를 소외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관내 소외계층 200세대에 13kg씩 전달했다. 황승일 새마을협의회회장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맛있는 김장김치를 드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